

Part 3

2026 주요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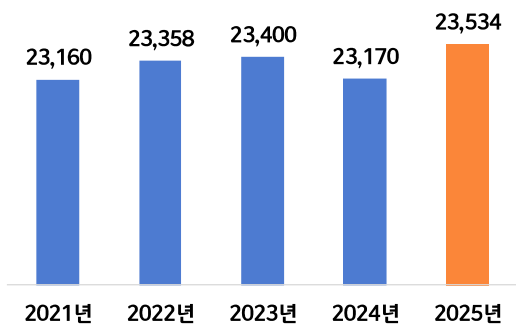
- 1 인구 항목
- 2 시도 공통 항목
- 3 전라남도 항목
- 4 장성군 특성 항목

1. 인구 항목

- ▶ 2025년 장성군의 '세대' 수는 23,534세대로 2024년(23,170세대) 대비 364세대 증가함
- ▶ 2025년 장성군의 '주민등록인구'는 42,958명으로, 2024년(42,026명) 대비 932명 증가함. '남자'는 22,038명으로, 2024년(21,548명) 대비 490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20,920명으로, 2024년(20,478명) 대비 442명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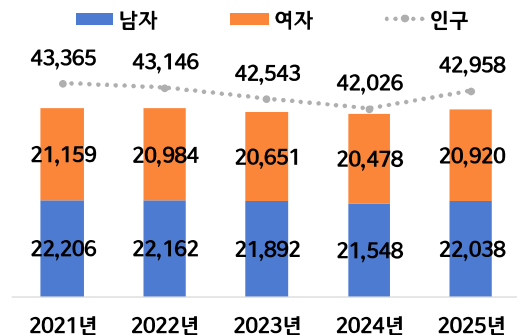
<< 세대 수 >>

(단위 : 세대)



<< 주민등록인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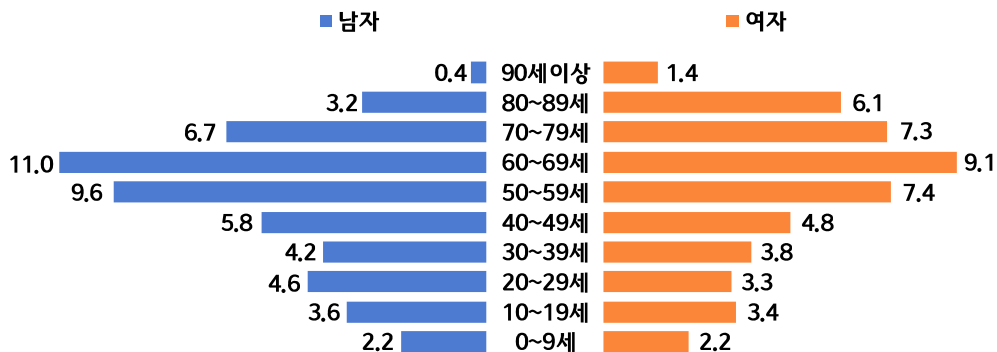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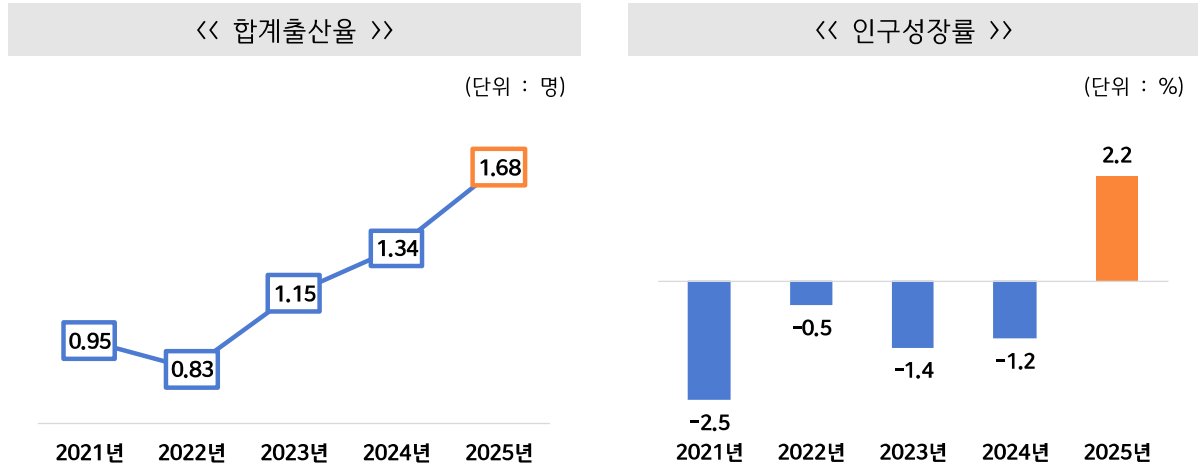
- ▶ 2025년 장성군 '인구' 중 60~69세(8,622명, 20.1%)가 가장 많고, 50~59세(7,316명, 17.0%), 70~79세(6,006명, 14.0%) 순으로 나타남
- ▶ 2025년 장성군 전체 '인구'(42,958명)에서 '남자'의 비율은 51.3%(22,038명), '여자'의 비율은 48.7%(20,920명)로 나타남. 60대까지는 '남자'의 '구성비'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70대부터는 '여자'의 '구성비'가 더 높게 나타남

<< 성별 및 연령별 인구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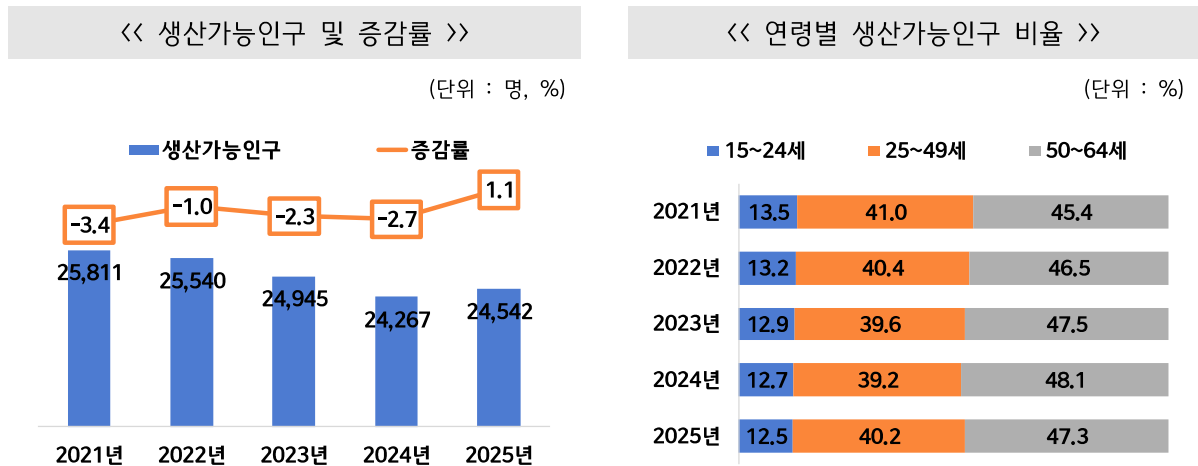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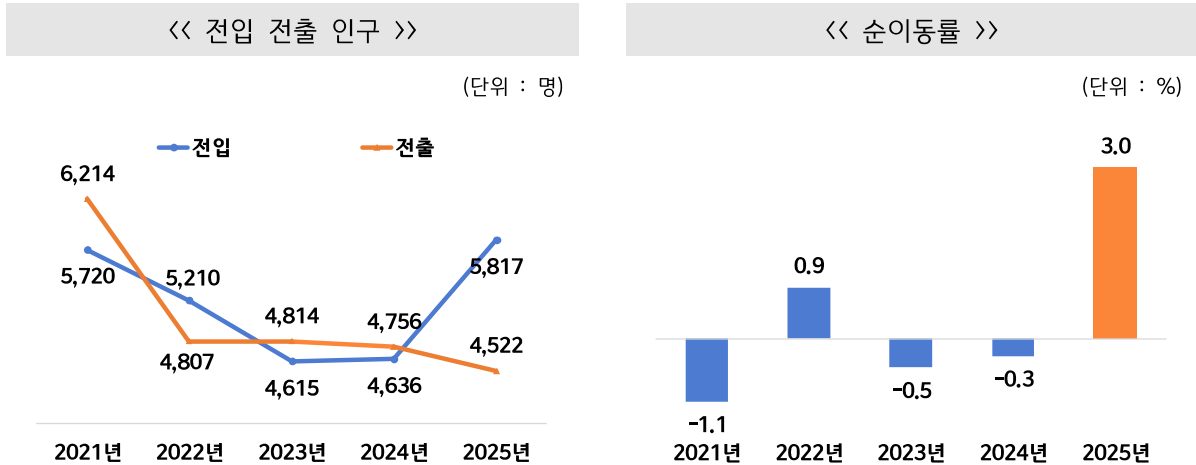
- ▶ 2025년 장성군의 ‘(잠정)출생아 수’는 300명으로 2024년(196명) 대비 104명 증가함. 2025년 장성군의 ‘(잠정)합계출산율’은 1.68명으로 2024년(1.34명) 대비 0.34명 증가함
- ▶ 2025년 장성군의 ‘인구성장률’은 2.2%로 2024년(-1.2%) 대비 3.4%p 증가함. 2023년 이후 장성군의 ‘인구성장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5년 장성군의 ‘인구성장률’은 양의 성장률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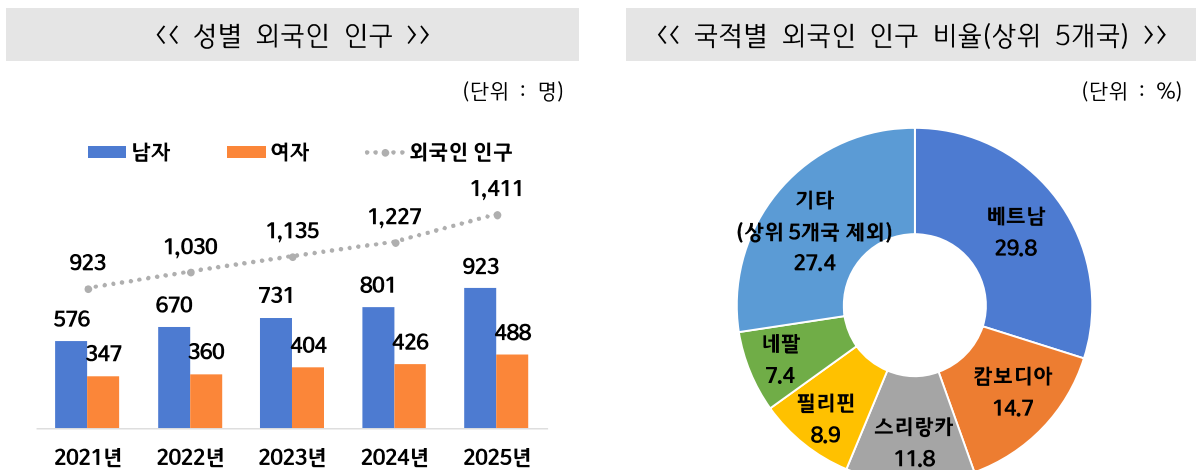
- ▶ 2025년 장성군의 생산가능인구는 24,542명으로 2024년(24,267명) 대비 275명 증가함
- ▶ 2025년 장성군의 생산가능인구는 ‘50~64세’가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49세’(40.2%), ‘15~24세’(12.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2025년 장성군의 ‘전입’ 인구는 5,817명으로 2024년(4,636명) 대비 1,181명 증가함. 2025년 장성군의 ‘전출’ 인구는 4,522명으로 2024년(4,756명) 대비 234명 감소함. 2023년까지 ‘전입’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24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 장성군의 순유입 인구는 1,295명으로 나타나며 ‘순이동률’은 3.0%로 나타남. 2024년(-0.3%) 대비 2025년 장성군의 ‘순이동률’은 3.3%p 증가함



- ▶ 2025년 장성군의 ‘(잠정)외국인 인구’는 1,411명으로 2024년(1,227명) 대비 184명 증가하였으며, 남자는 923명, 여자는 488명으로 나타남
- ▶ 국적별 ‘(잠정)외국인 인구’는 ‘베트남’이 29.8%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14.7%), ‘스리랑카’(11.8%), ‘필리핀’(8.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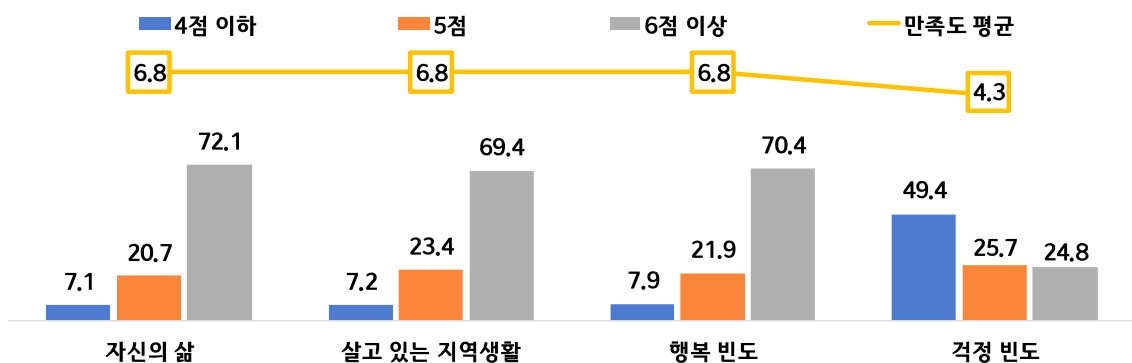
2.

시도 공통 항목

- ▶ 2026년 장성군의 자신의 삶, 살고 있는 지역 생활, 행복 빈도에 대해 ‘대체로 만족(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각각 72.1%, 69.4%, 70.4%로 나타남
- ▶ 2026년 장성군의 자신의 삶, 살고 있는 지역 생활, 행복 빈도의 ‘만족도 평균’은 모두 6.8점으로 나타남
- ▶ 2026년 장성군의 걱정 빈도 ‘만족도 평균’은 4.3점으로 나타남

<< 삶에 대한 만족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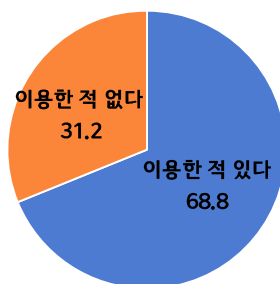
(단위 : 점, %)



- ▶ 장성 군민의 의료기관 ‘월 평균 이용 횟수’는 1.9회로 나타남.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68.8%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의료기관은 의원(56.1%)으로 나타남
- ▶ 의료기관을 이용한 군민 중 의료서비스에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9.6%로 2024년(46.6%) 대비 13.0%p 증가함. 의료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3.8점으로 2024년(3.6점) 대비 0.2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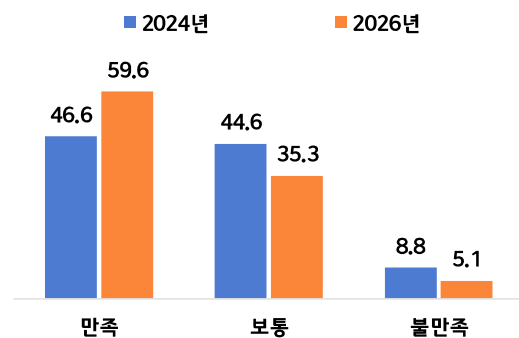
<< 의료기관 이용 비율 >>

(단위 : %)



<< 의료서비스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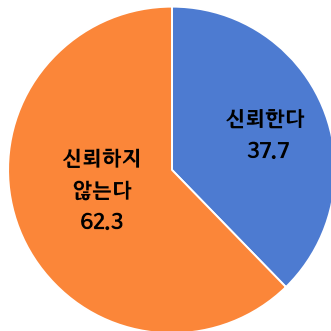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 군민의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37.7%), ‘신뢰하지 않는다’(62.3%)로 나타남
- ▶ 연령별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는 60세 이상, 65세 이상이 모두 44.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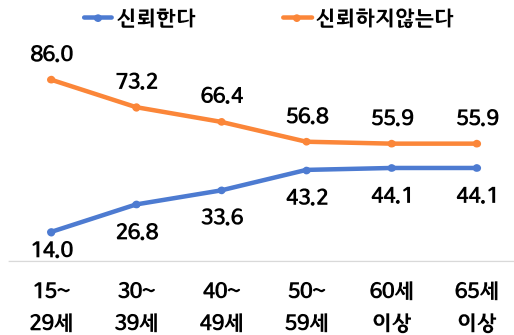
<< 일반인에 대한 신뢰 >>

(단위 : %)



<< 연령별 일반인에 대한 신뢰 >>

(단위 : %)



-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96.2%로, 2024년(95.5%) 대비 0.7%p 증가함
-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평균 인원’은 4.2명으로 2024년(4.1명) 대비 0.1명 증가함. 성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96.1%, 여자 96.2%로 나타나며, ‘평균 인원’은 남자 4.3명, 여자 4.2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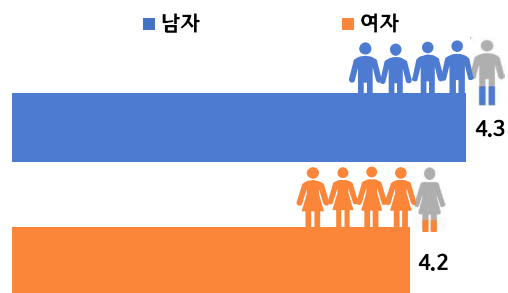
<<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

(단위 : %)



<< 성별 사회관계별 소통정도(평균 인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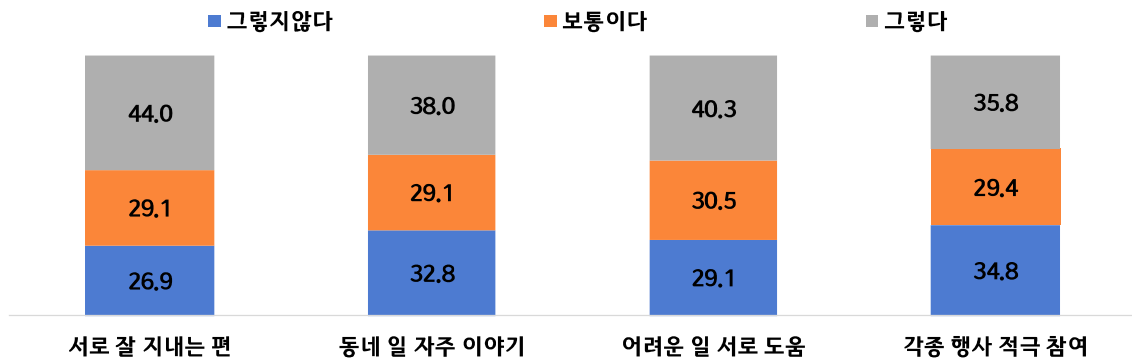
(단위 : 명)



- ▶ 장성 군민은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44.0%),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38.0%)라고 응답함
- ▶ 장성 군민은 동네의 관심 및 교류에 대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40.3%),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35.8%)라고 응답함

<< 공동체 의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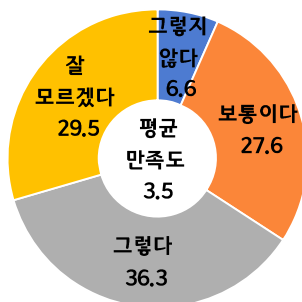
(단위 : %)



-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36.3%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29.5%), ‘보통이다’(27.6%), ‘그렇지 않다’(6.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3.5점으로 나타남
-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42.8%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27.2%), ‘보통이다’(25.1%), ‘그렇지 않다’(4.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3.7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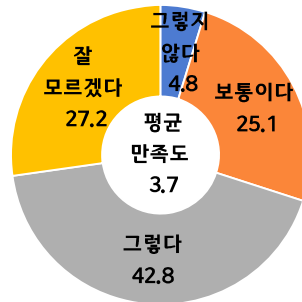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 만족도 >>

(단위 : %, 점)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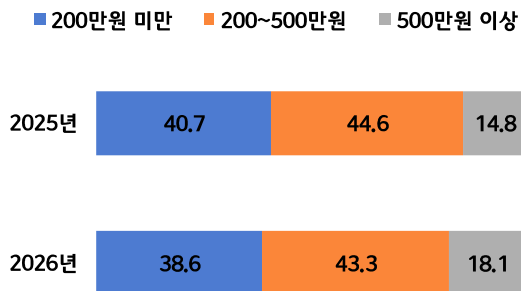
(단위 : %, 점)



- ▶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61.4%로 2025년(59.4%) 대비 2.0%p 증가함
- ▶ 지역별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 비율은 북부권 48.5%, 서부권 43.2%, 광주인근권 36.2%, 중부권 34.3%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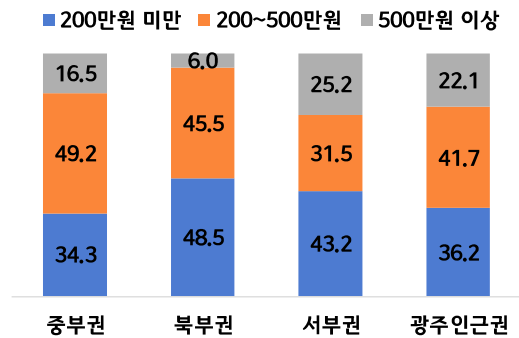
◀ 가구 월평균 소득 ▶

(단위 : %)



◀ 지역별 가구 월평균 소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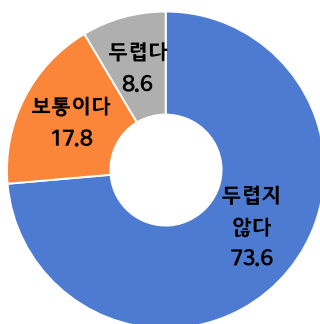
(단위 : %)



-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3.6%로 2024년(72.6%) 대비 1.0%p 증가함
- ▶ 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6.7%로 2024년(64.6%) 대비 2.1%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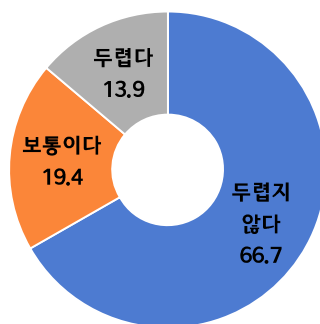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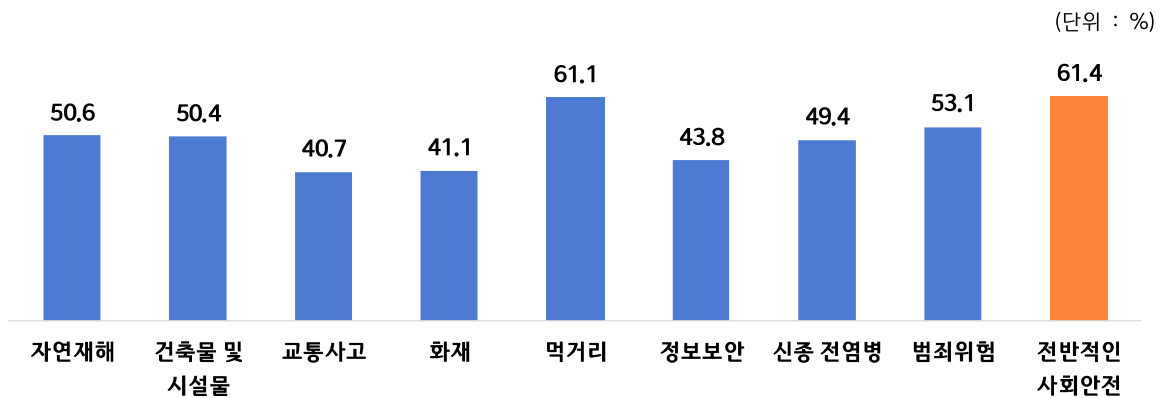
◀ 밤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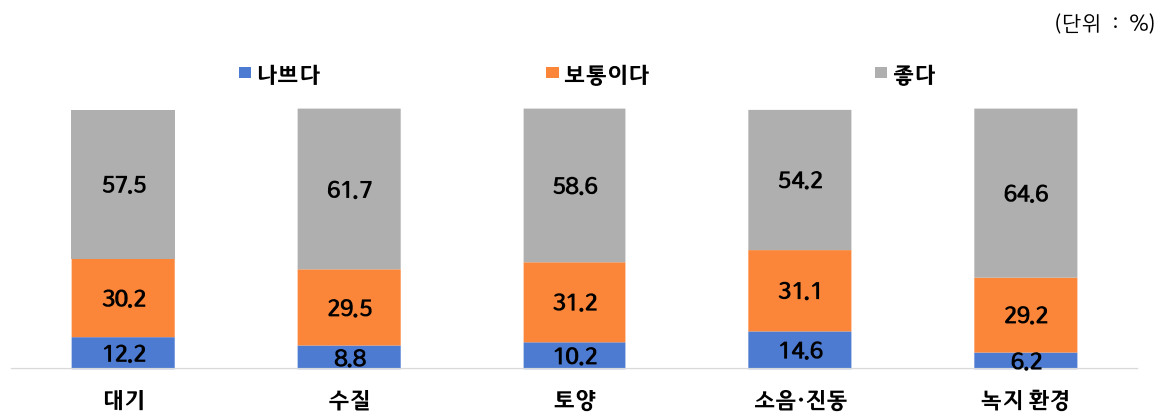
- ▶ 2026년 장성군의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반적인 사회안전(61.4%)이 가장 높았고, 먹거리(61.1%), 범죄위험(53.1%), 자연재해(50.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먹거리(61.1%), 신종 전염병(49.4%), 전반적인 사회안전(61.4%) 항목의 ‘안전’ 응답 비율은 2024년(58.5%, 43.6%, 58.1%) 대비 각각 2.6%p, 5.8%p, 3.3%p 증가함
- ▶ 장성군의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불안’이라고 응답한 항목은 정보보안(18.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재(16.5%), 신종 전염병(16.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안전) >>



-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환경체감도에 대해 ‘좋다’라고 응답한 항목은 녹지환경(64.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질(61.7%), 토양(58.6%), 대기(57.5%), 소음·진동(5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환경체감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음·진동, 녹지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2024년 대비 각각 대기(57.5%) 1.1%p, 수질(61.7%) 2.5%p, 토양(58.6%) 4.3%p 증가함

<< 환경체감도 >>



시도 공통 항목 총괄

- ▶ 2026년 「의료서비스 만족도」에서 장성군의 의료기관 이용 비율은 68.8%로 나타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2024년(3.6점) 대비 0.2점 증가한 3.8점으로 만족 수준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에 대해 ‘진료 대기 및 입원 대기 시간’(22.6%)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됨. 이에 따라 **장성군의 ‘찾아가는 농촌 왕진 버스’를 확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ICT 화상 진료)과 같은 비대면 진료 연계체계를**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보건 기관과 지역 의료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면 진료 대기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2026년 장성 군민 중 ‘밤에 혼자 지역(동네)의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고 응답한 군민은 13.9%로 2024년(12.2%) 대비 1.7%p 증가함. 이에 따라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중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42.7%), ‘보안등 설치로 범죄 취약지역 해소’(27.5%) 순으로 높게 나타남. 따라서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 확충 및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확충하고, 장성군에서 주민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는 인공지능 CCTV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시행중인 QR가로등을 늘리거나 **서울특별시에서 진행중인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한다면** 안전 체감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됨
- ▶ 2026년 장성 군민이 가장 ‘불안’하다고 응답한 안전 환경 항목은 ‘정보보안’(18.8%)으로 나타났으며, ‘화재’에 대한 불안 비율은 16.5%로, 2024년(8.8%) 대비 7.7%p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임. 이에 따라 장성군이 운영 중인 ‘**디지털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의 디지털 문해교육을 연계·확대해, **마을을 방문해 디지털기기 사용법과 사기 예방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 나주시 사례와 같이 **무선기지국·송전철탑에 실화상·열화상 인식 카메라와 산불 분석 장치를 설치해 산불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 군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2026년 장성 군민의 ‘환경체감도’에 따르면 ‘녹지 환경’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2024년(3.3%) 대비 2.9%p 증가함.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함께 가꾸고 누리는 울산 숲’을 참고하여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에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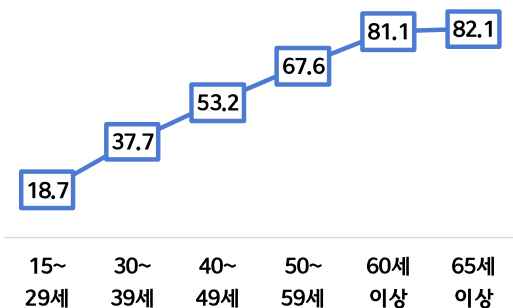
3.

전라남도 항목

- ▶ 2026년 장성 군민 중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62.6%,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64.2%로 나타남
- ▶ 연령별 결혼을 ‘해야 한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양육비용 부담’이 35.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2024년(15.2%) 대비 20.3%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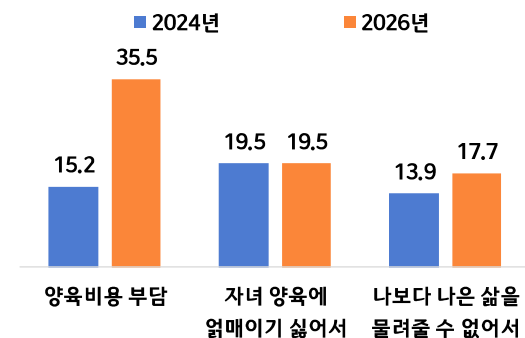
<< 연령별 자녀에 대한 견해(있어야한다) >>

(단위 : %)



<< 자녀 없어도 되는 이유(상위 3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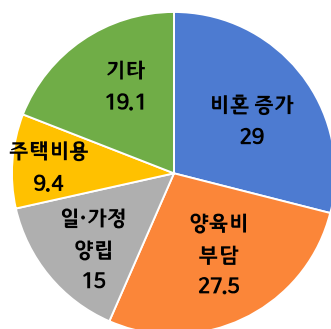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은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29.0%), ‘자녀 양육비 부담’(27.5%),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5.0%), ‘주택 마련 비용 부담’(9.4%)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은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26.0%),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20.7%), ‘결혼 지원금 지급 확대’(17.9%), ‘일·가정 양립 제도 지원’(12.7%)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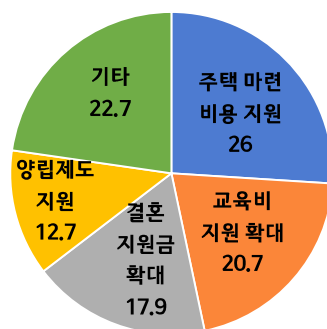
<< 저출산 원인(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상위 4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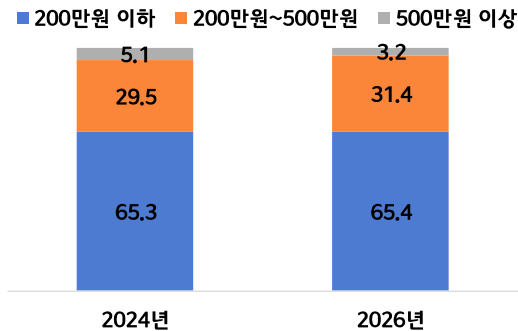
(단위 : %)



- ▶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에 대해 ‘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군민은 65.4%로, ‘200만원~500만원’(31.4%), ‘500만원 이상’(3.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 항목에 ‘식료품비’라고 응답한 군민은 44.9%이고, 특히 1순위로 선택한 군민은 50.2%로 나타남
- ▶ ‘식료품비’를 제외한 문항에서는 ‘보건의료비’(15.5%), ‘교통비’(10.0%), ‘주거비’(9.6%), ‘교육비’(6.3%)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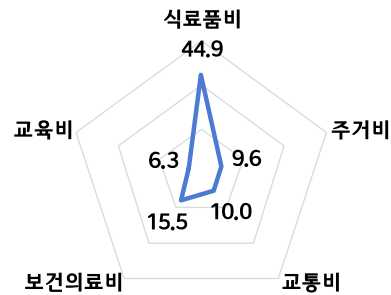
<< 월 평균 소비지출액 >>

(단위 : %)



<<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상위 5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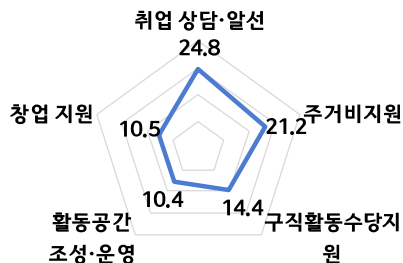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군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취업 상담·알선’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거비 지원’(21.2%),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14.4%), ‘창업 지원’(1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취업 상담·알선’에 대한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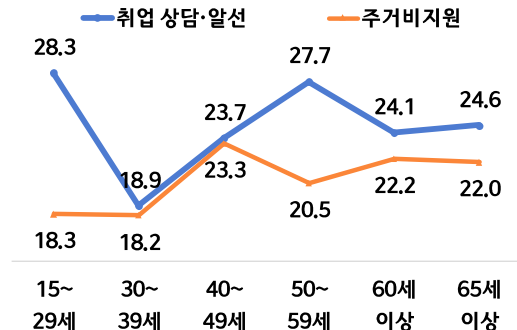
<< 청년 지원 정책(상위 5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청년 지원 정책(상위 2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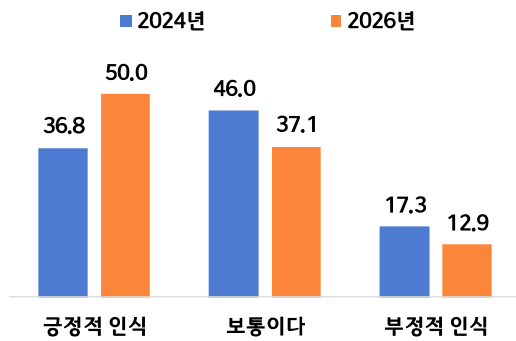
(단위 : %)



- ▶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50.0%로 나타났고, ‘부정적 인식’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2.9%로 나타남.
- ▶ 가장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으로 ‘한국어 교육’이 ‘보통 이상’의 인식에서 각각 ‘매우 긍정적이다’ 38.4%, ‘긍정적이다’ 53.5%, ‘보통이다’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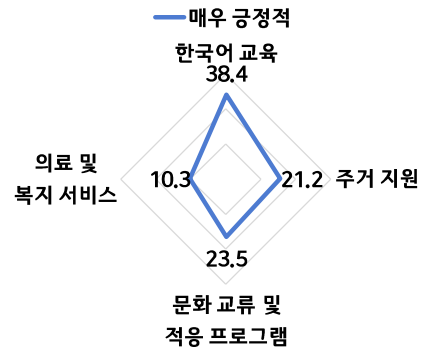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식 >>

(단위 : %)



<<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상위 4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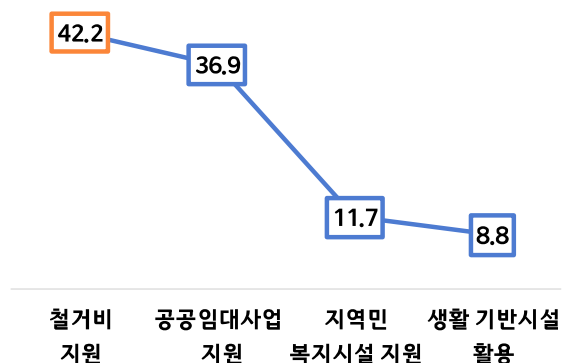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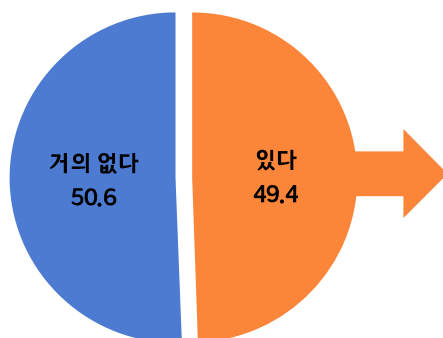
(단위 : %)



- ▶ ‘빈집이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50.6%로, 빈집의 방치 정도에 대해 ‘빈집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1.2%로 2024년(12.1%) 대비 9.1%p 증가함
- ▶ 빈집 처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42.2%)가 가장 높고 ‘재활용 가능한 빈집 새단장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36.9%), ‘주민 휴식공간, 공원조성 등 지역민 복지시설 지원’(11.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빈집의 수와 빈집 처리 또는 활용방안(기타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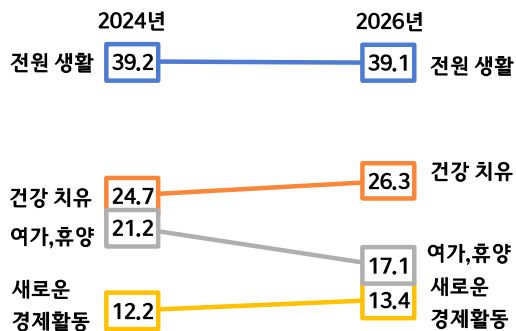
(단위 : %)



- ▶ 귀농어·귀촌 이유에 대해 ‘전원생활’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39.1%로 가장 높았고, ‘은퇴 후 여가 및 휴양’(26.3%),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17.1%), ‘건강 치유’(13.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귀농어·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귀농어·귀촌에 대한 정착자금융자 지원’이 36.5%로 가장 높고, ‘귀농어·귀촌 관심 분야 사전 체험프로그램 제공’(24.3%), ‘귀농어·귀촌에 관한 정보제공 기회 마련’(23.4%)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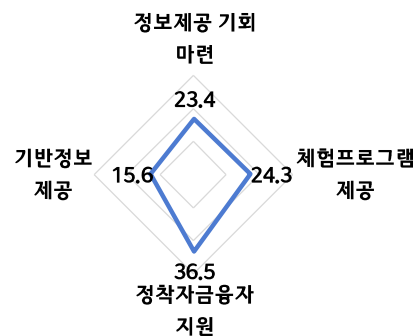
<< 귀농어·귀촌 이유(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귀농어·귀촌 지원정책(기타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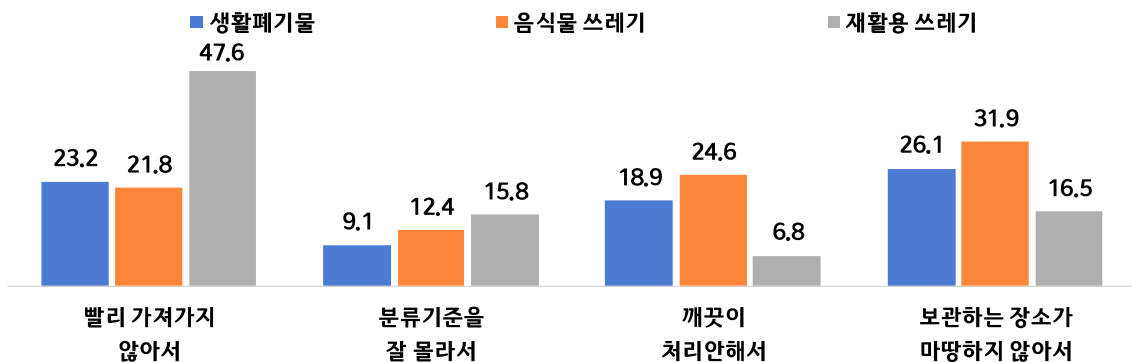
(단위 : %)



- ▶ 쓰레기 처리 만족도에 대해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생활폐기물 50.8%, 음식물 쓰레기 51.5%, 재활용 쓰레기 49.1%로 나타남
- ▶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26.1%, 31.9%),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47.6%)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상위 4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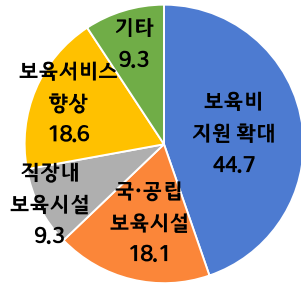
(단위 : %)



-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로 ‘보육비 지원 확대’(44.7%),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18.6%)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18.1%),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9.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에 대해 ‘보육비 지원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42.9%, 여자 46.7%로 여자가 남자 대비 3.8%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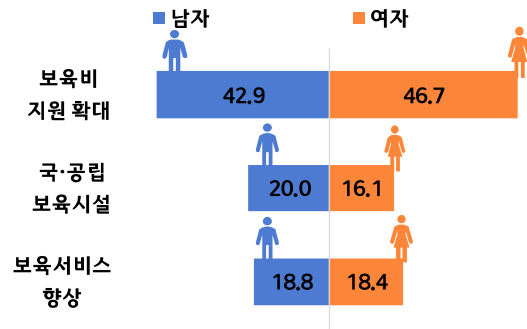
<<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성별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상위 4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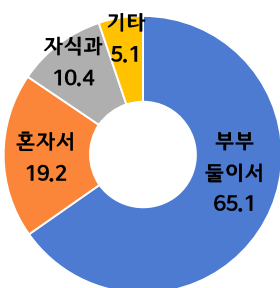
(단위 : %)



- ▶ 군민들이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는 ‘부부 둘이서’(65.1%), ‘혼자서’(19.2%), ‘자식 또는 배우자와 함께’(1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가 ‘부부 둘이서’와 ‘혼자서’인 경우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소로 ‘자택’이 각각 68.1%,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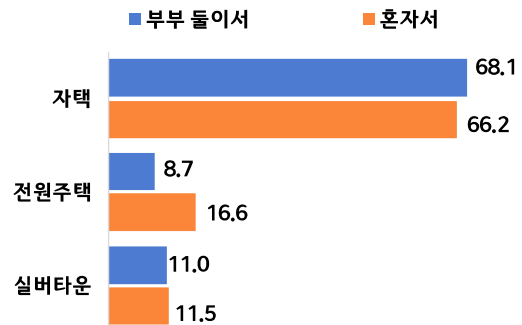
<<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상위 3개 항목) >>

(단위 : %)



<< 요양서비스 받고 싶은 장소(상위 3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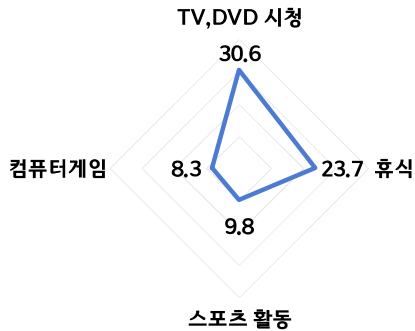
(단위 : %)



-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TV 및 DVD 시청’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휴식’(23.7%), ‘스포츠 활동, 등산 등 건강관리’(9.8%),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8.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관광’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스포츠 활동, 등산 등 건강관리’(14.2%), ‘휴식’(12.0%), ‘취미, 자기개발’(10.6%)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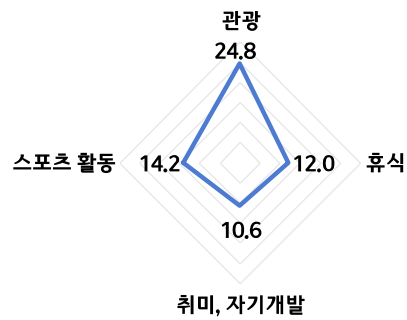
<< 주로 하는 여가 활동(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상위 4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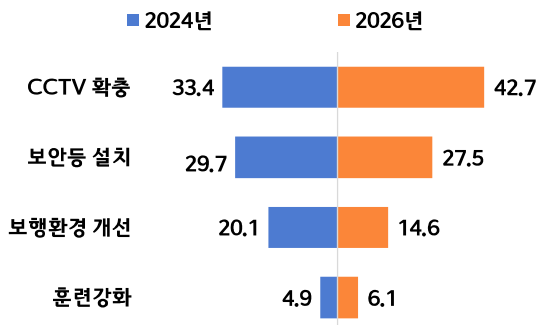
(단위 : %)



- ▶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법용 CCTV 확충’(42.7%)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여자가 남자보다 ‘방법용 CCTV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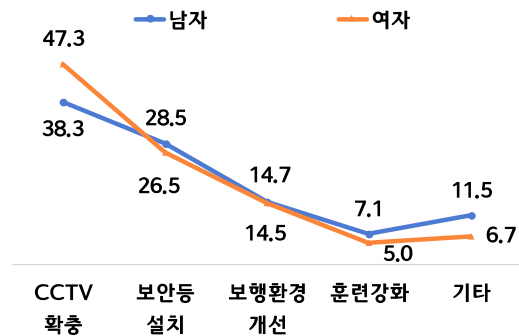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성별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상위 4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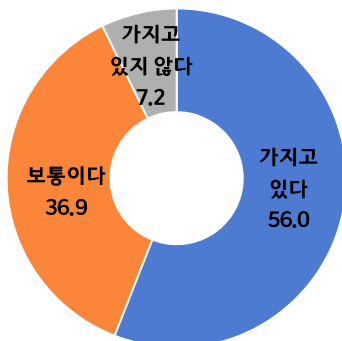
(단위 : %)



- ▶ 지역민으로서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56.0%로 나타남
- ▶ 지역민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광주인근권(67.0%)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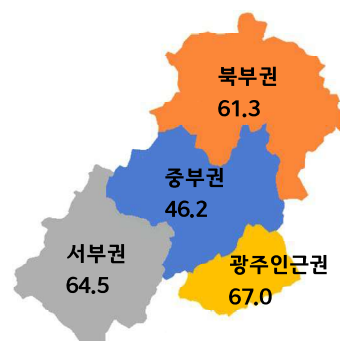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

(단위 : %)



<< 지역별 소속감 및 자부심(가지고 있다) >>

(단위 : %)



전라남도 항목 총괄

- ▶ 「월 평균 가구소비」에서 장성 군민이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식료품비’(44.9%)로 나타남. 특히 식료품을 ‘장성관내’에서 구입하는 군민의 비율은 88.2%로, 장성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으로 ‘합리적인 상품 가격’(29.5%), ‘품목의 다양화’(27.2%)를 기반하여 품목 다양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군민의 식료품 구입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주시 등 로컬푸드 선도지역 사례처럼 생산농가 참여 확대와 공동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체계를 구축하고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필수 품목 공급을 확대하여 식료품 구입 비용 절감과 직매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함**
- ▶ 2026년 장성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라남도 「청년 지원 정책」은 ‘취업 상담·알선’(24.8%), ‘주거비 지원’(21.2%)으로 나타남. 또한, 장성군의 「청년 지원 정책」은 ‘일자리 확충 및 취업 지원’(62.0%), ‘주거지원’(21.6%)으로 나타남. 이를 위해 **장성군에서 운영 중인 ‘맞춤형 직업·진로 상담, 직업교육 훈련 연계’등에 대한 청년층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SNS, 대학 및 청년단체 연계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청년 주거정책 지원 사업’처럼 지원 대상을 19~45세 무주택 청년(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포함) 전반으로 폭넓게 설계하여 월세 등 주거비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2026년 장성 군민의 「쓰레기 처리 만족도」는 2024년(66.1%, 63.4%, 66.4%)대비 생활폐기물(50.8%), 음식물 쓰레기(51.5%), 재활용 쓰레기(49.1%) 모두 11.9%p 이상 감소함.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로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26.1%, 31.9%)로, 재활용 쓰레기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47.6%)로 나타남.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자원순환역’처럼 상시 분리배출이 가능한 생활권 거점시설을 확대하여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클린하우스’처럼 상시 배출 가능한 수거 거점을 늘려 재활용품 적체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56.0%로 나타남. 전라남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처럼 5인 이상 주민 모임·단체 단위로 마을 비전 수립부터 테마 사업 추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동아리·마을 단위의 참여 경험이 지역 애착과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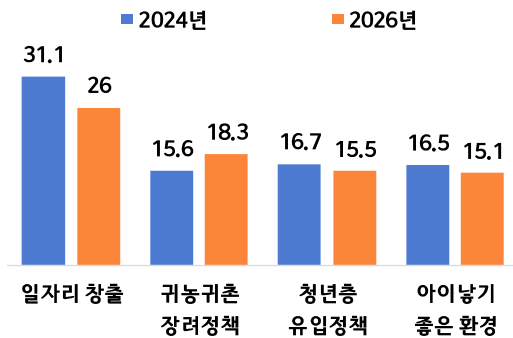
4.

장성군 특성 항목

-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우선 추진 인구증가 정책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26.0%)로 나타났으며, ‘귀농귀촌 장려정책’(18.3%), ‘청년층 유입과 자립을 위한 정책’(15.5%),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1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우선 추진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 남자의 경우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27.6%, ‘귀농귀촌 장려정책’(17.3%), ‘청년층 유입과 자립을 위한 정책’(14.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24.4%, ‘귀농귀촌 장려정책’(19.4%),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17.0%)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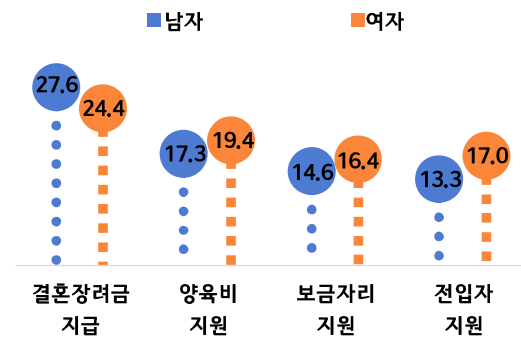
<< 인구증가 정책(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성별 인구증가 정책(상위 4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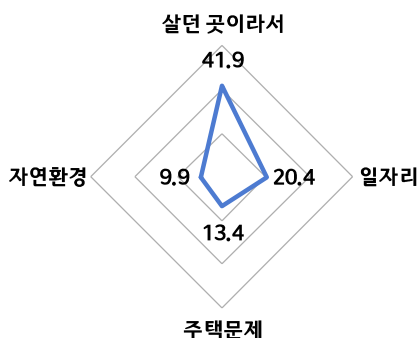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군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전부터 살던 곳이라서’(41.9%)로 나타남
- ▶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예전부터 살던 곳이라서’를 제외하고, 현 거주지 거주 사유로 중부권과 서부권의 경우 ‘직장 및 일자리’(28.9%, 17.0%)가, 북부권과 광주인근권의 경우 ‘공기·녹지 등 자연환경’(11.7%, 21.9%)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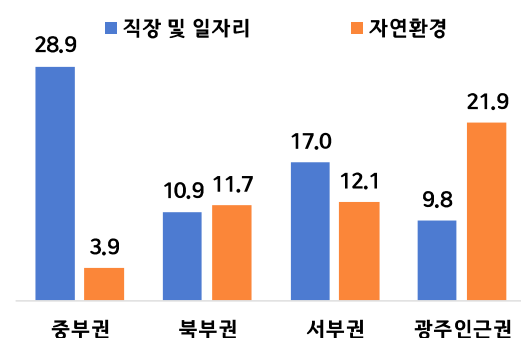
<< 거주지 거주 사유(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거주지 거주 사유(2순위, 3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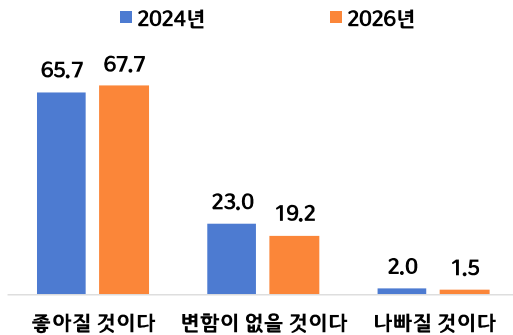
(단위 : %)



- ▶ 5년 후 장성군의 생활여건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7.7%,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5%로 나타남
- ▶ 연령별 생활여건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5세 이상에서 7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세 이상(75.6%), 50~59세(68.8%), 40~49세(62.2%) 순으로 생활여건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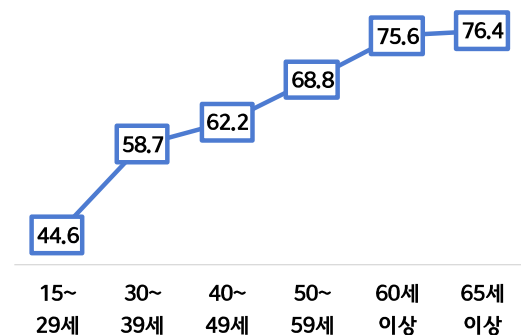
<< 생활여건 변화 기대(잘 모르겠다 제외) >>

(단위 : %)



<< 연령별 생활여건 변화 기대(좋아질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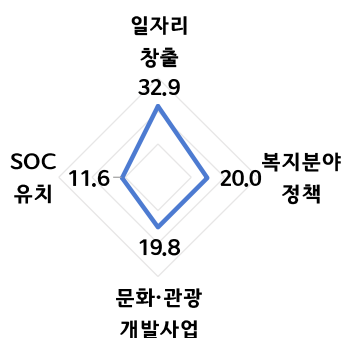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 군민은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32.9%)이라고 응답함
- ▶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높은 응답으로는 북부권과 서부권은 각각 23.3%, 24.8%로 '복지분야 정책(노인·여성·아동복지 등)'이, 중부권과 광주인근권에서는 각각 24.5%, 20.1%로 '문화·관광 개발사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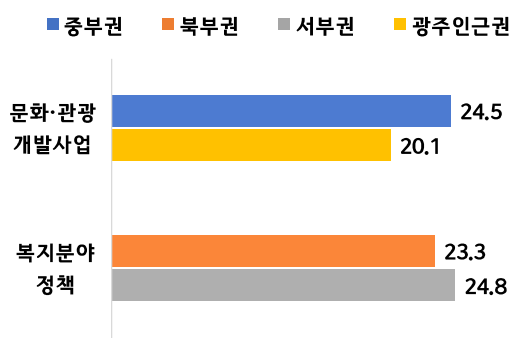
<<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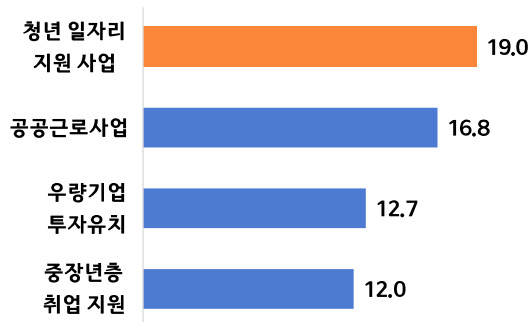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 군민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 투자 분야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19.0%)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15~59세’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비율이, 60세 이상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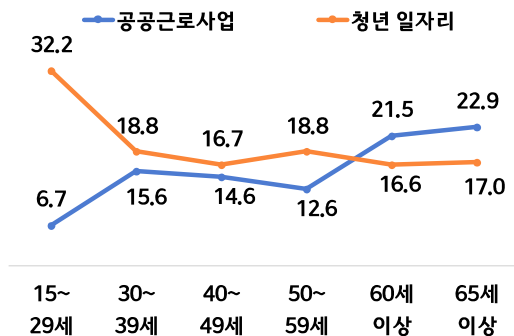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상위 2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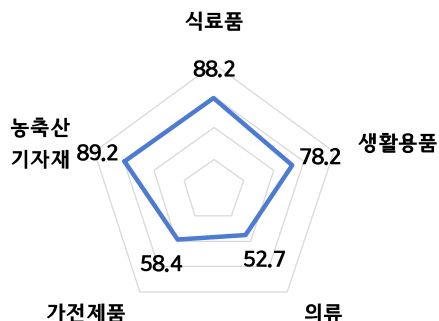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한 군민의 비율은 식료품(88.2%), 생활용품(78.2%), 농축산기자재(89.2%)로 나타남
- ▶ 식료품의 경우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중부권,서부권은 각각 46.9%, 43.4%로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에 비율이 가장 높지만, 북부권과 광주인근권의 경우 각각 56.3%, 44.8%로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지리적으로 가까워서’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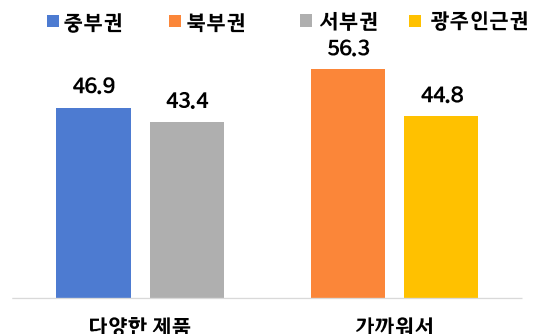
<< 물품 구입 지역(장성관내) >>

(단위 : %)



<< 지역별 타 지역에서 물품 구입 이유(식료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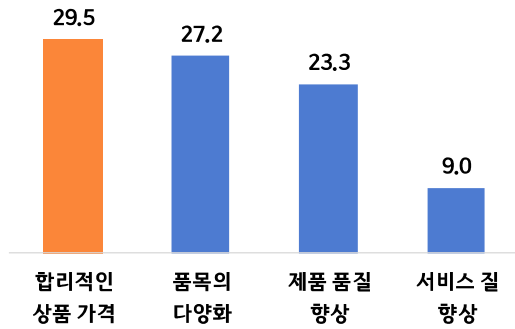
(단위 : %)



-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으로 ‘합리적인 상품 가격’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으로 15~29세, 50세 이상은 ‘합리적인 상품 가격’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30~49세는 ‘품목의 다양화’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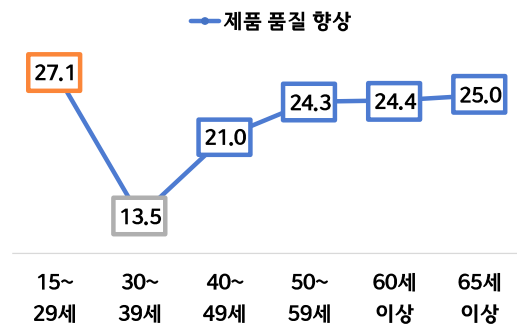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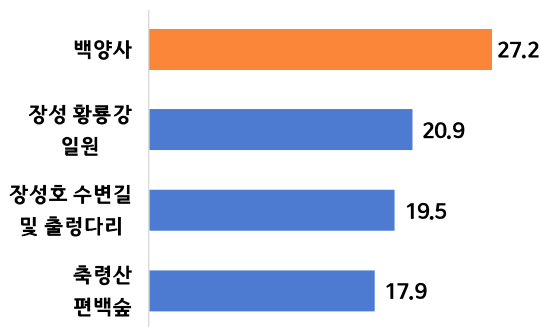
(단위 : %)



- ▶ 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명소로 ‘백양사’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지역별 소개하고 싶은 관광명소로 백양사를 선택한 비율은 북부권이 36.5%로 가장 높았고, 서부권(32.7%), 중부권(23.5%), 광주인근권(22.5%)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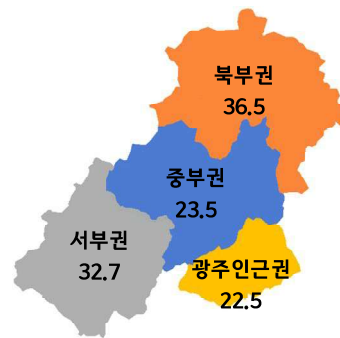
◀ 관광명소 (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관광명소(백양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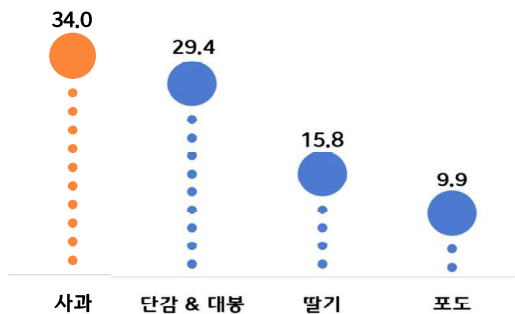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군에서 집중 육성해야 할 특화작목으로 ‘사과’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특화작목 추천 이유로 ‘맛과 품질이 우수하므로’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성군을 대표하는 품목이므로’(29.9%), ‘농가소득이 큰 품목이므로’(18.1%), ‘기후요건에 가장 적합하므로’(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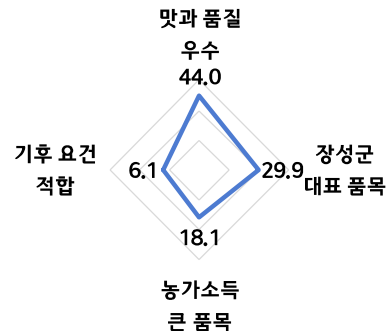
<< 집중 육성해야 할 특화작목(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품목 추천 이유(상위 4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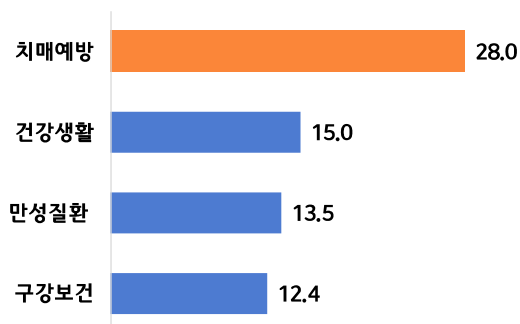
(단위 : %)



- ▶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보건소 사업으로 ‘치매예방’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치매예방’에 대한 응답률은 30~39세(13.6%)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65세 이상(32.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두 연령 간 응답률 차이는 19.3%p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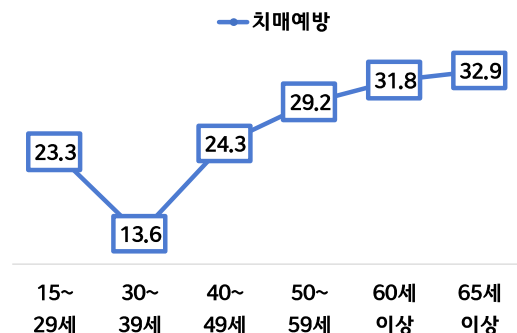
<<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상위 4개 항목)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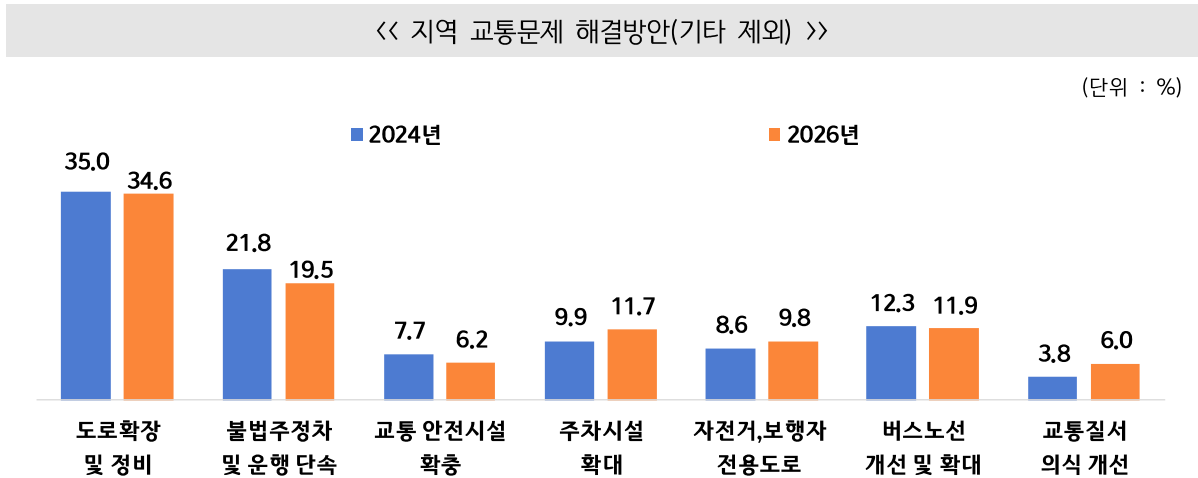


<< 연령별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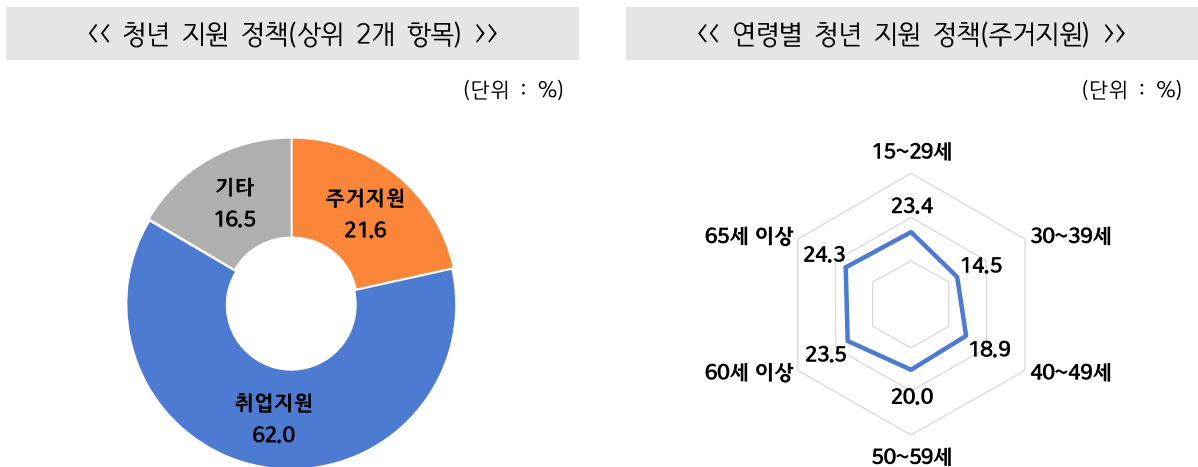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확장 및 정비’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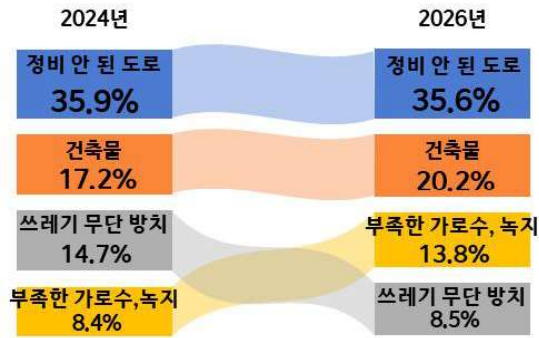
- ▶ 청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 확충 및 취업 지원’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연령별 ‘주거지원’에 대한 응답은 65세 이상(24.3%), 60세 이상(23.5%), 15~29세(23.4%), 50~59세(20.0%), 40~49세(18.9%), 30~39세(14.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정비해야 할 도시경관으로 ‘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축물’ (20.2%), ‘부족한 가로수와 녹지’(13.8%), ‘쓰레기 무단방치’(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를 제외한 응답의 비율은 중부권과 서부권, 광주인근권에서 각각 19.8%, 23.4%, 20.5%로 ‘건축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부권에서는 17.8%로 ‘부족한 가로수와 녹지’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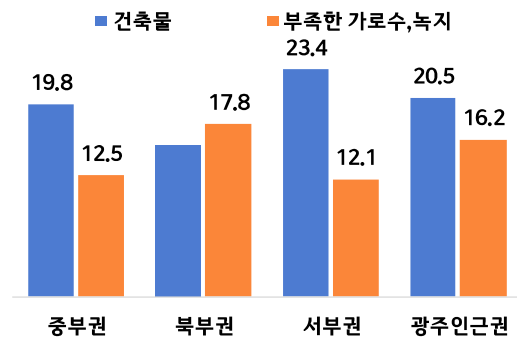
<< 도시경관 정비(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도시경관 정비(상위 2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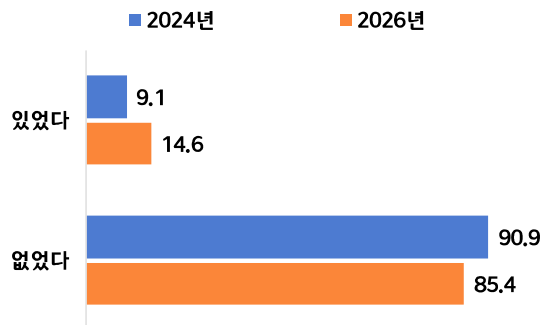
(단위 : %)



- ▶ 평생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로 2024년(9.1%) 대비 5.5%p 증가함
- ▶ 평생교육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군민 중 수강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은 '건강관리'가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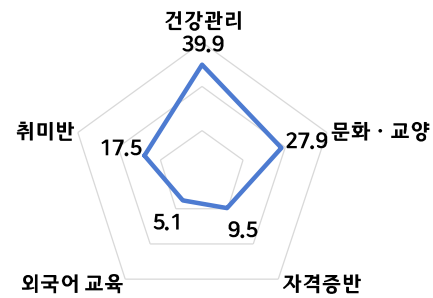
<< 평생교육 수강여부 >>

(단위 : %)



<< 평생교육 수강 프로그램(기타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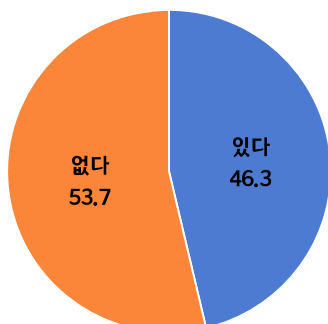
(단위 : %)



- ▶ 문화체육시설에 대해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46.3%로 나타남
- ▶ 장성문예회관, 홍길동체육관, 군립도서관에 이용 만족도는 82.5%, 80.0%, 83.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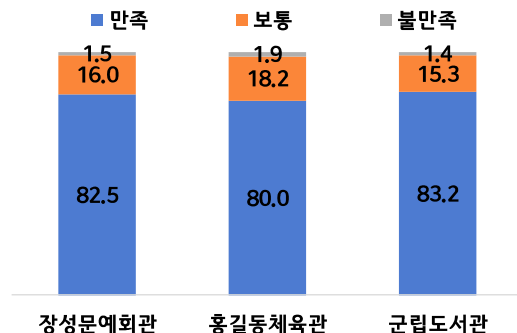
<< 문화체육시설 이용 여부 >>

(단위 : %)



<< 문화체육시설 이용 만족도 >>

(단위 : %)



장성군 특성 항목 총괄

-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인구증가 정책」 우선 추진정책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26.0%)이며,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19.0%)이 높은 응답을 보임. **최근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이 검토되며 장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장성군은 반도체 공장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수소 산업 육성’, 음성군의 ‘산업단지 기반 일자리 창출 사례’와 같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자체,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해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 정주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장성군은 「관광명소」중에 ‘백양사’(27.2%), ‘장성 황룡강 일원’(20.9%), ‘장성호 수변길 및 출렁다리’(19.5%), ‘축령산 편백숲’(17.9%) 등 우수한 자연·생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녹지 환경’에 대한 「환경체감도」는 64.6%로 나타남. 이에 따라 **백양사를 중심으로 단풍과 사찰문화 자원을 활용한 템플 스테이, 야간 산사음악회,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근 숙박·먹거리·체험 콘텐츠와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패키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봄(벚꽃), 여름(계곡), 겨울(설경·명상) 등 **계절별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단풍철에 집중된 방문 수요를 분산시키고, 사계절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 2026년 장성 군민은 가장 시급한 「도시경관 정비」 경관을 ‘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35.6%)라고 응답하였고, 가장 우선적인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또한 ‘도로 확장 및 정비’(34.6%)를 요구함.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고창군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례’를 참고해 생활도로 확장 및 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보행로·가로환경 개선을 병행하여 안전성과 경관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민 이용이 많은 생활권 도로를 중심으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교통 불편 해소와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해야함**
- ▶ 2026년 장성군의 「문화체육시설 이용 및 만족도」 중 이용 만족도는 80.0% 이상으로 이용 만족도는 높으나, 이용 비율은 46.3%로, 여전히 이용하지 않는 군민(53.7%)이 더 많은 실정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45.4%), ‘거리가 멀어서’(33.9%)로 나타남. 이에 따라 **거리 제약 해소를 위해 읍·면 마을회관·경로당 등 생활권 거점을 활용한 ‘찾아가는 문화 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간 제약 해소를 위해 새벽·야간·주말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장인·자영업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